

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교환

강원도의 환경 현상

□일반 현황

-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심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6,874km²로써 대한민국 전체 면적 99,460km²중 17% 차지하고 이중 81%인 13,671km²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행정구역은 모두 18 시도(7 시, 11 군), 인구는 153 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 460 만명의 3.3%를 점유하고 연평균 강수량은 1,100~1,300mm, 연평균 기온은 10~12°C 수준이며 254 개소의 하천과 8 개소의 인공댐 및 7 개소의 자연호수가 있다.

□자연 환경

-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3 개소(70km²)의 “생태계보전지역”과 8 개소의 “자연공원”(국립공원 3 개소 843km², 도·군립공원 5 개소 36km²) 및 107 개(국가지정 29, 도지정 78)의 “천연기념물”을 주요 관리대상 지정·보호하고 있다.
- 강원도의 귀중한 자연자원중의 하나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을 따라 폭 4 km의 비무장지대(DMZ)가 있으며 이곳은 그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어 다양한 희귀 야생 동·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유네스코(UNESCO) 「접견생물권보전지역」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.

□수질 분야

- 강원도는 산업계 오염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중 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% 수준이며 도내 하천의 80%가 I 급(BOD 1mg/l 이하)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.
-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은 14 개소(457,000m³)이며 2006 년도 완공을 목표로 23 개소(119,000m³)의 하수처리장을 추가 설치하고 있어 사업이 완공될 경우 하수처리율은 75~80%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- 이외에도 17 개소(1,480 톤/일)의 분뇨처리시설과 4 개소(700m³/日)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중에 있으며, 최근에는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행정력을 집중·추진하고 있다.

□대기 분야

- 대기오염 실태파악을 위하여 도내 6 개소의 「대기오염상설측정망」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03 년도의 연평균 주요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로서 이산화황(SO₂)의 경우 0.0045ppm, 이산화질소(NO₂)는 0.0205ppm로서 도내 전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대개적으로 양호한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.
-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중 하나는 시멘트 소성로 및 발전소와 같은 “대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”은 24 시간 감시측정망을 설치하여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, 앞으로 2007 년까지 주요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총 398 대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사용버스로 교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.

□환경시책 추진

- “자연생태·물·공기”는 전국 제1의 청정자원이므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「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」이라는 강원도적 환경원칙 아래 지난해 12 월 “전국 최초로 도정업무 전반에 걸친 ISO 14,001”을 취득한 바 있다.
- 과학적인 하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「물관리 GIS 시스템」을 자체적으로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에 대한 가치를 도민의 이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「환경적 수리권」에 대한 연구·개발을 추진중에 있다.